

2000.8.6

참된 교회의 비전

마 16:13-20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강렬하지만 사라지는 꿈을 꾸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꿈을 꾸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니다.

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해 내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가진 자의 특징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꿈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여 잘 사는 꿈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한 꿈, 십자가를 지는 꿈을 꾸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이뤄 드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꿈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꿈을 자식이 이뤄드린다면, 위대한 사람의 꿈을 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룰 때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게 되는 꿈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꿈, 병들고 죽어가는 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꿈의 결과입니다. 꿈은 이렇게 멋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안겨 줍니다.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었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그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와 십자가를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었던 교회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먼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오늘 괜찮았어?', '내 설교 어때?' 등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베드로는 정신없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말로 대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아직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열심은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해 보면 잘 모릅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적 결단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라는 꾸짖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뱉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눈뜨고 후회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회개도 하고 기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네 지성과 의지와 목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시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고백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네가 지금 한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론의 중요한 첫 번째 명제가 나옵니다. 진정한 교회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얼마나 다른지?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사람 위에 세워진 데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개척교회 멤버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교파가 높아질 때 교회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작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목사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 교인들도 가짜라는 뜻

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 교파중심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는 '고백공동체'요, '예수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하용조 목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찬양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설교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기도할 때도 예수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온전히 예수만 보십시오. 인간적인 감정, 체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게 되면 내 체면, 자존심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것도 아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용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걷는 것은 예수님이 걷는 것이요, 내가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몇 개만 있으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 우리같이 더럽고 희망 없고 생각이 짧고 감정적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몸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도 18절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공동체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여리고 성처럼 물질과 권력과 힘이 크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은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교회는 중국에 있는 처소교회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7천

만~1억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타락한 교회는 자본주의 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멋지게 보입니다. 건물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핍박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이겨내는 능력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끄시는 성령님

마지막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된 교회는 ‘열쇠공동체’입니다. 열쇠란 잠긴 것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열쇠라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열쇠라야 열립니다. 여러분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힙니다.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영생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면 다 열립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랍습니까?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곳에 있는 문을 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공동체, 열쇠공동체, 구원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20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좋은 소식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진 후에야 시작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후에는 승천이 일어났습니다. 승천이 있는 후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는 씨앗입니다. 씨앗으로 말미암아 잉태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 성령으로 해산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다섯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공동체, 예수공동체, 능력공동체, 열쇠공동체, 성령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영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가 교회를 만들어가십니다. 이 교회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개신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요,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삶, 직업, 가정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